



7 제1146호

1998년 5월 11일(월요일)

“창간 43주년을 축하합니다”

【서울캠퍼스】

교수

육창수 43년동안 꾸준히 창간된 것을 축하드리며,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봉사해 학생들의 눈이 돼주었으면 합니다. **정성현**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며 학생들의 권익차원과 의견수렴에 수고를 아끼지 말아주길, 또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대학주보가 되길 바랍니다. **유종준** 경희대 대학주보사의 43주년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약진하고 있는 경희대와 더불어 동문은 물론 전국에 널리 소개되고 읽히지는 소식지로서 우리의 모습이 역력히 웅비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국내를 비롯 세계적으로 선양되어서 저명한 대학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하윤문** 축하드립니다. 세계속의 언론으로 과감히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강현숙**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알찬 정보의 정확한 전달로 도움이 되는 사황을 함께 실어주는 대학주보가 됐으면 박신애 대학주보여! 알차게라, 강인하여라, 부드러워라! **김 암** 대학주보의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 제일의 학교, 제일의 신문사, 제일의 음대로 다 함께 정진합시다. **박종국** 대학주보가 진정한 언론의 표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규환** 프리스타일면과 같은 참신한 면을 많이 만들고 전문성있는 글을 실기 바랍니다. **이석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캠퍼스처럼,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신문이 되라! **안영수** 21C 세계 속의 대학에 맞는 대학주보가 되길... **박이도** 정론직필하는 경희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김 열** 43주년을 축하하며 영원한 경희의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순진** 40여년 발전한 주보가 앞으로 100년을 채울때까지 무궁한 발전을 하길 기원합니다. **정민서** 창간기를 넘어서서 중장년기에 들어선 대학주보가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충실히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김달애** 내나이보다 어린 대학주보지만 나보다 훨씬 성숙하게 다가옵니다. **박영철** 43년의 정론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장경환** 43년의 사공을 넘어서서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발전하기를 **김대기** 100년후에도 지금 같은 좋은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며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홍형욱** 장년의 성숙된 모습으로 더욱 정진하길 바랍니다 **구성자** 다양한 지식의 매체가 되길 바랍니다.

직원

김수곤 서울 부총장 대학주보의 43년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날 아등고 어려웠던 시절에 대학언론이 그 사명을 다해 온 것을 기초로 해서 변화하고 있는 새시대에 걸맞는 지성의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백현** 서울 대외협력실 과장 읽기에 편하고 짜임새 있는 내용이 돋보입니다. 앞으로도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소식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태경** 서울 대외협력실 계장 경희의 등대로서 비판의 선두주자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영원히 비판의식을 잃지 마십시오. **김준현** 서울 기획조정실 계장 모든 경희인들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대학주보! **김동성** 계장 50주년 기념사업회 계장 진리의 샘에 끝없는 불꽃이는 대학주보의 뉘. **서형석** 서울 교무처장 창간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성화된 대학신문으로 교

직원과 학생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쓰고, 읽고, 지적하는 신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일** 연구처 과장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정론직필의 햇불이 되라. **조용호** 서울 학생처장 신문방송국장을 비롯한 학생기자들의 고생으로 제공되는 알찬 기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붓이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대학주보가 직접 증명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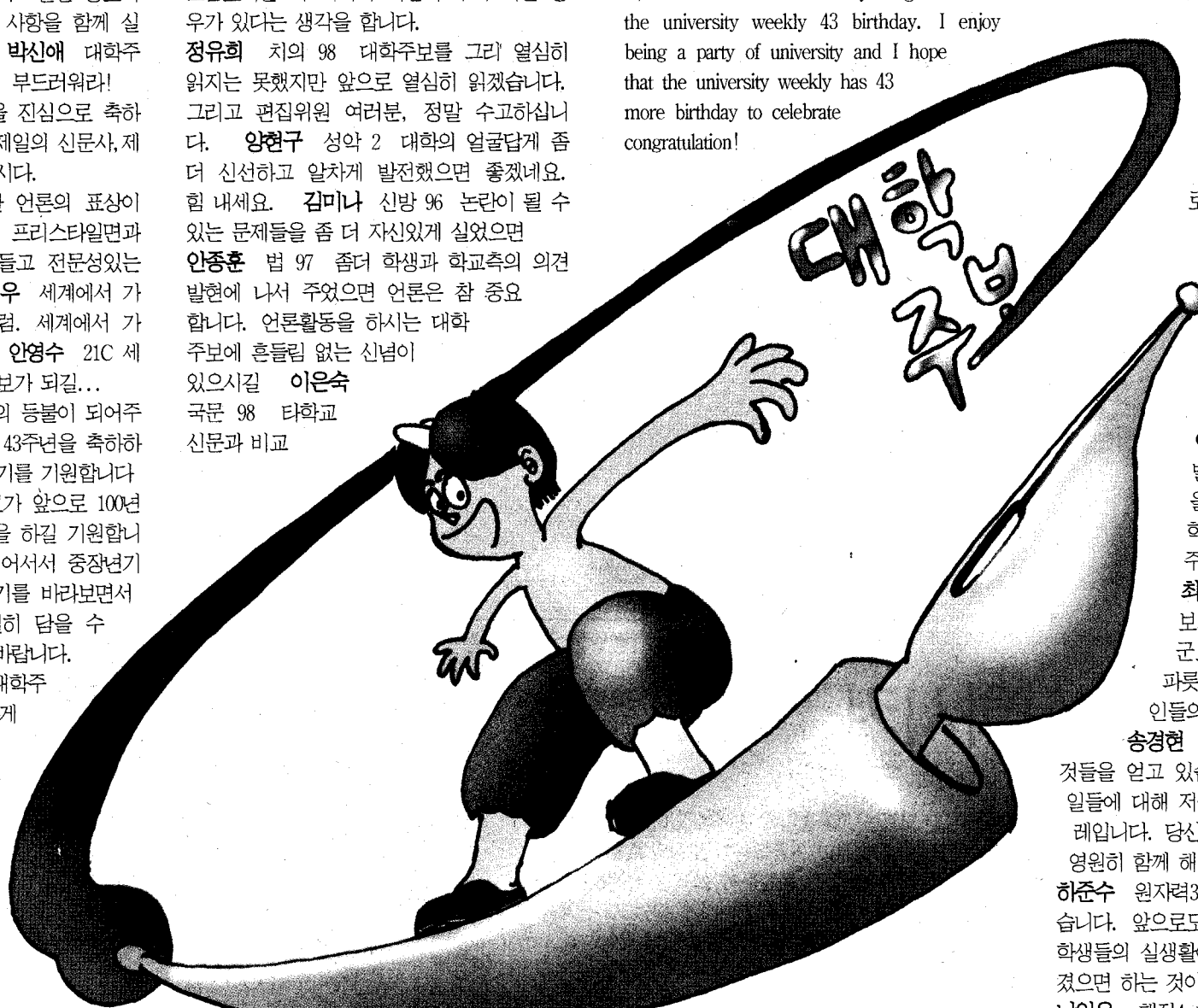
학생

김정은 아동주거 3 어려운 일들 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즐겁게 일하세요. **홍진용** 치의 97 서울관과 수원관을 나누어 주세요. **신주섭** 치의 92 신문은 색깔이 있어야 하고 대학주보라면 학생들의 의견 및 입장이 그 바탕색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대학주보는 색깔도 모호하고 관조적인 자세가 보이는 때도 있으며 전체 신문의 흐름보다는 각 기자의 의견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유희** 치의 98 대학주보를 그리 열심히 읽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양현구** 상악 2 대학의 얼굴답게 좀 더 신선하고 알차게 발전했으면 좋겠네요. 힘 내세요. **김미나** 신방 96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자신있게 실었으면 **안종훈** 법 97 좀더 학생과 학교측의 의견 발현에 나서 주었으면 언론은 참 중요 합니다. 언론활동을 하시는 대학주보에 흔들림 없는 신분이 있으시길 **이은숙** 국문 98 타학교 신문과 비교

【수원캠퍼스】

교수

홍성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렇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기사를 쓸 수 있게 노력 바랍니다. **김광환** 정확한 정보 전달과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풍토 조성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세요. **김한원** 문화세계의 창조를 향하여 부단한 전진을 계속하는 대학중의 대학, 경희의 대학주보 43년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석진** 국제경쟁력에 발맞추어 나가는 경희를 빛낼수 있는 대학주보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사까** 앞으로도 많은 정보 많이 기대합니다. **JAMES RUSSELL** congratulation for 43 years of service. keep up the good work! **민관동** 젊은 패기 때문에 가슴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러기에 그들의 양심은 영원 하리라. **LAURA** I want to say congratulation to the university weekly 43 birthday. I enjoy being a party of university and I hope that the university weekly has 43 more birthday to celebrate congratulation!



직원

박규홍 부총장 43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21C 대학신문의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박경서** 연구산학협력처장 43년의 역사를 가진 대학주보가 대학의 밝은 귀와 눈이 되는 참된 대학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윤영아** 정보처리센터 더 많이 알리고 비판과 더불어 건설적인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주보가 되길 바랍니다. **우성필** 입학관리과 대학주보 창간 43주년을 축하합니다. 경희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신문교가 되기를 **최병두** 입학관리과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잠들지 않은 시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조지원** 총무과 창간 43돌을 맞이하여 더욱 발로 뛰고 노력하는 대학주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학생

김선호 생명자원과학2 정말 축하드립니다 대학주보가 있기에 우리 학생들은 교내 행정이나 대학문화에 대해 많은걸 접할 수 있습니

다. 43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보사 여러분들도 파이팅 **홍정희** 불문1 43번째 주보사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만들어지고 많이 보여졌는데, 더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게 해 주세요 파이팅 주보사 **조용범** 자연과학1 주보사43주년을 정말로, 진심으로 열렬히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이규동** 행정3 우리 아버지도 보셨던 대학주보, 아들인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내 자식도 대학주보를 볼 수 있기를 **김선우** 생명자원과학1 경희 만세! 주보사 만세! **임종수** 입학과 4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보다 더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성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경아** 생명자원과학1 축하드립니다. 벌써 43주년이라니! 그만큼 책임이 무거워 지겠지요. 이제까지는 대학생의 말을 잘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 새로운 정보가 가득차길 바라며 열심히 계속해 주십시오. **오기욱** 생명자원과학1 대학주보사의 4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친숙한 주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방 소개를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다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용식** 경영1 주보사, 참 오래도 사셨네요. 100주년 행사때 다시 쓸 기회를 주세요. **하해요.** **이소영** 경영1 대학주보가 벌써 43년을??? 창간 43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경희 학우들의 큰 목소리가 되어 주었음 좋겠어요. **최승봉** 의료시스템1 대학주보가 벌써 43주년을 맞이 하는군요. 따뜻한 봄날 풀잎처럼 파릇 파릇 새롭게 단장해서 경희인들의 휴식처가 되었으면 해요. **송경연** 전산3 대학주보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인의 여러 일들에 대해 저에게 눈과 귀가 되어주는 글 레입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글레입니다.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길...

하준수 원자력3 대학주보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빛나는 발전 있길 바라며, 학생들의 생활에서의 참여 기회가 좀더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남일우** 행정4 대학주보 창간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학주보가 전국의 대학인을 대표하는 진정한 정론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43주년을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학원을 위해 학생을 위해 열심히 **문선영** 자연과학1: 아니 벌써! 43살이야~ 생각보다 늙었네요. 우리학교 영원한 속에 주보사의 좋은 소식을 바래요 진짜로 추카해요! **이강민** 생명자원과학1 43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도 계속 대학생들의 바른 눈, 귀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주원** 생명자원과학1 대학주보의 4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대학주보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 산** 생명자원과학1 대학주보사 43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경희 일만 학우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세요. 경희인과 함께하는 주보가 되기를 빌며 다시한번 43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석규** 생명자원과학1 안녕하세요! '대학주보'하면 왠지 가까이 있으면서도 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는 좀 더 편안하고 친숙한 주보사가 되어 주세요. **김수지** 생명자원과학1 축하합니다.

Free Style 1년 평가

Free style



▲ 작년 5월 12일 처음 발간된 Free style

발상의 전환 Free style

지난 해 5월 12일 발간된 1119호부터 대학주보에 상식을 뛰어 넘는 획기적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한 면을 가득 채우는 사진. 한층 가벼워진 주제, 직선과 곡선을 넘나드는 편집, 바로 대학주보 속의 테마신문 'Free Style'이 지난 1년간 대학주보 독자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다. 1997년 창간 기념호에서 'Trend', '통일', 'Vision'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것을 시작으로 Free Style에서 지난 1년간 다룬 주제는 '방학', '군대', '학점', '채팅', '웃', '점(占)', '백수', '이름', '벤처', '선(線)' 등이다. 위와 같은 주제의 선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초반에 다룬 '방학', '군대', '학점' 등은 대학생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소재여서 주요 독자층인 학생들의 관심 유도에 유리했던 반면, '웃', '채팅' 등은 이미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도 여러 번 다루어졌을 뿐 아니라 주제의 공유 대상 또한 광범위하다는 점 또한 단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주제 자체가 갖는 범위의 방대한 만큼이나 다양한 방향으로 다루어 졌는데, 1138호 Free Style의 주제였던 '백수'의 경우 '한국의 백수'라는 소주제 속에서 한국 소설 속의 백수, 한국 가족제도와 백수로 나누어 내용을 다루었는가 하면 '백수 다시보기'라는 소주제 속에서는 백수의 실리, IMF와 백수, 역사 속의 백수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백수를 다루어 보기도 했으며, 1144호 Free Style의 주제로 삼은 '선'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선의 의미부터 곡선과 직선으로 본 선의 심리학까지 다루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듯 다양하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독자에게 선보인 Free Style이 좋게 평가받기만 한 것은 아니다. 주제의 폭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내용의 깊이가 얕다', '시기에 맞지 않는 주제를 간혹 다뤄 현실과의 연계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단점으로 지적받기도 했다. 당초 Free Style은 기존의 신문지상에서 아이텐와 할 수 없었던, 그러나 우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소재들을 지면으로 끌어 올려 독자들의 더 많은 공감대를 얻어 보고자 기획,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흥미 위주의 주제만을 채택하고, 주제를 가공하는 데 있어서도 깊이가 없는 가공, 단순히 보여지기 위한 가공을 한 점이 단점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Free Style에서는 흥미는 물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관심 분야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혁신적인 편집을 계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강남이 기자)